

# “연승 시동 걸었다, 내친김에 3연승”



광주FC가브리엘이 지난 1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경기에서 0대1로 뒤진 후반 3분 동점골을 터뜨린 후 포효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 진격의 광주FC, 오는 17일 원정 포항전



GWANGJU FOOTBALL CLUB

시즌 개막과 함께 홈 2연승으로 리그 선두에 나선 광주FC가 포항 원정에 서 리그 3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포항 스틸야드에서 포항스틸러스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홈에서 FC서울, 강원FC를 연파하며 2라운드 연속 베스트 팀, 베스트 매치에 선정된 광주는 시즌 첫 원정 승리로 초반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 2라운드에서 3골을 몰아치며 연속 '베스트 11'과 M.O.M.(최우수선수)에 선정된 '무등산 호랑이' 가브리엘이 공격의 선봉에 선다.

오른발, 왼발, 머리로 각각 골을 기록한 가브리엘은 원래 왼발잡이지만 오른발도 잘 쓰고, 절대 밀리지 않는 피지컬과 폭발적인 스피드도 뛰어나다.

특유의 엇박자 드리블과 영리한 위치 선정으로 수비 예측을 어렵게 함으로써 페널티 박스 안 결정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강원전에서 1분 만에 선제골을 내주고도 후반 4골을 터뜨리며 '이정효 축구'의 진수를 보여준 광주의 막강 화력이 포항전에서도 불을 뿜어낼지가 관전포인트다.

국가대표 MF 정호연도 돌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난 경기, 절묘한 크로스로 가브리엘의 재역전 헤더골을 어시스트한 것은 물론, 중요 고비마다 킥패스로 공격의 활로를 뚫고 있다.

강한 압박 속에서도 불을 지켜내고, 패스를 연결하며 흔들리는 팀을 안정시켰다.

원정길에서 맛따드릴 포항도 기세가 등등하다.

지난주 홈경기에서 대구를 3-1로 완파하며 박태하 감독의 첫 승을 선물한 포항은 통산전적 16승 8무 2패로 광주에게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시즌에도 4차례 맞붙어서 1승 2무 1패로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포항의 경계 대상 1호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 조르지. 박태하 감독이 부임과 동시에 K리그2 총북청주FC에서 영입한 선수로, 지난 시즌 13골 2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대구 전에서는 3골 (1판어, 2어시스트)에 직간접 관여하면서 팀의 이

스 역할을 해냈다.

광주에서 이적한 김중우도 위협적이다.

이정효 감독의 전술을 잘 알고, 광주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에 익숙하다. 지난 경기에서는 현란한 개인기로 꽤 골을 넣었다. 작년 4월, 포항 원정에서도 김중우의 활약으로 쓰러진 패배를 맛본 적이 있다.

리그 선두를 질주하며 K리그 팬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광주FC.

지난 준우승팀 포항과의 원정대결은 올 시즌 광주가 진정한 강팀으로 성장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K리그 최고의 전술가로 떠오른 이정효 감독이 어떤 전술을 펼칠 지 주목된다.

## ‘막강 화력’ 선봉장 가브리엘, 3경기 연속 골 도전 ‘이정효 축구 조율’ 중원사령관 정호연 활약 주목

원정길에서 맛따드릴 포항도 기세가 등등하다.

지난주 홈경기에서 대구를 3-1로 완파하며 박태하 감독의 첫 승을 선물한 포항은 통산전적 16승 8무 2패로 광주에게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시즌에도 4차례 맞붙어서 1승 2무 1패로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포항의 경계 대상 1호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 조르지. 박태하 감독이 부임과 동시에 K리그2 총북청주FC에서 영입한 선수로, 지난 시즌 13골 2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대구 전에서는 3골 (1판어, 2어시스트)에 직간접 관여하면서 팀의 이

스 역할을 해냈다.

광주에서 이적한 김중우도 위협적이다.

이정효 감독의 전술을 잘 알고, 광주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에 익숙하다. 지난 경기에서는 현란한 개인기로 꽤 골을 넣었다. 작년 4월, 포항 원정에서도 김중우의 활약으로 쓰러진 패배를 맛본 적이 있다.

리그 선두를 질주하며 K리그 팬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광주FC.

지난 준우승팀 포항과의 원정대결은 올 시즌 광주가 진정한 강팀으로 성장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K리그 최고의 전술가로 떠오른 이정효 감독이 어떤 전술을 펼칠 지 주목된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

/AP=연합뉴스

## “이정후, MLB 신인왕 후보”

### MLB닷컴 “점화플러그 역할...SF에 큰 변화 가져올 것”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올 시즌 미국프로야구(MLB) 신인왕 후보로 거론됐다.

MLB닷컴은 13일 양대 리그 6개 지구별로 2024시즌 신인왕, 최우수선수(MVP), 사이영상, 올해의 감독 후보를 추려 소개했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콜로라도 로키스가 있는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에서는 이정후가 신인왕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MLB닷컴은 “샌프란시스코가 이번 비시즌 많은 선수를 영입했지만, 그중에서도 이정후는 구단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발도 빠르고 콘택트 능력이 좋은 이정후는 팀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에너지와 활기를 불어넣는) ‘스파크플러그’(sparkplug)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당신도 모르는 사이 이정후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후는 올 시즌 시범경기에서 8경기 22타수 7안타(1홈런) 3타점으로 활약하고 있다.

다른 5개 지구에서는 잭슨 홀리데이(볼티모어 오리올스), 콜트 키스(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에번 카터(텍사스 레인저스), 맥스 마이어(마이애미 말린스), 이마나가 쇼타(시카고 컵스)가 꼽혔다.

이정후와 같은 지구에 속한 ‘신인왕 최다’ 야마모토 요시노부(다저스)는 일찌감치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MLB닷컴은 4개 부문 후보의 소속 팀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했는데, 무기베츠(다저스)가 NL 서부지구 MVP 후보로 꼽혔기 때문이다.

MLB닷컴은 “오타니 쇼헤이(다저스)가 올 시즌 투수까지 겸한다면 MVP 후보로 유력했을 것”이라며 “베츠는 올해 유격수로 뛰면서 자신의 가치를 한 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태극기에 손가락 하트까지...

## 서울 오는 오타니, SNS서 감동 인사

15일 서울에 도착하는 미국프로야구(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먼저 한국 팬들에게 인사를 했다.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오타니는 13일 SNS 계정에 환한 미소와 함께 손가락 하트로 포즈를 취한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위에는 태극기도 함께 실어 오는 20-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치르는 MLB 정규리그 개막전인 서울시리즈의 홍보 인사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지난해 팔꿈치를 수술해 올해에는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는 오타니는 지난해 타자로 고척 스카이돔에서 장쾌한 홈런포에 도전한다.



손가락 하트로 인사하는 오타니.

<오타니 쇼헤이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오타니는 이달 초 스프링캠프 훈련 시작 전에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서울 시리즈 출전을 공언했다.

/연합뉴스

## 쇼트트랙 1위 박지원·김길리, 세계선수권 출격

쇼트트랙 남녀 ‘세계랭킹 1위’ 박지원(서울시청)과 김길리(성남시청)가 2023-2024시즌 마지막 국제대회인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격한다.

두 선수는 15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막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세계 최정상급의 실력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박지원은 지난해부터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킨 한국 남자 대표팀 간판이다. 그는 2022-2023시즌 ISU 월드컵 시리즈 세계랭킹 1위에 올랐고,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 2개를 거머쥐며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박지원은 올 시즌에도 거침없이 달렸다. 그는 올 시즌 6차례 월드컵 시리즈에서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해 세계랭킹 1위에 주는 크리스털 글로브를 2년 연속 차지했다.

여자부에선 김길리가 패권에 도전한다. 김길리는 최민정(성남시청)의 뒤를 잇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차세대 에이스다. 김길리는 올 시즌 ISU 월드컵 시리즈에서 여자부 종합 1위를 차지해 박지원과 함께 크리스털 글로브를 들어올렸다.

선수들은 15일 남녀 500m와 1,000m, 1,500m, 계주 예선을 치르고 16일 남녀 500m와 1,500m 메달 레이스를 펼친다.

/연합뉴스

## ‘총상금 2천500만 달러’ PGA 플레이스 챔피언십 개막

# “우승 욕심 난다”

### 아빠 된 김시우·상승세 안병훈, 남다른 출사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5의 메이저’인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1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의 TPC 소그래스(파7:7천275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이 대회는 총상금 규모가 2천500만 달러로 올해 열리는 PGA 투어 대회 가운데 가장 크다.

지난해에도 총상금 2천500만 달러를 내걸었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4대 메이저 대회보다도 상금 규모가 더 컸다. 지난해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US 오픈 총상금이 2천만 달러였고, 마스터스와 PGA 챔피언십, 디오픈은 2천만 달러가 안 됐다.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대회답게 세계 랭킹 1-10위 선수 가운데 LIV 골프 소속인 3위 윤 람(스페인)을 제외한 전원이 출전한다.

PGA 투어 전망으로는 최근 2년간 이 대회에서 공동 13위(2022년), 공동 6위(2023년)로 선전한 맥스 호마(미국)가 세플러에 이어 우승 후보 2위로 꼽혔고, 2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챔피언 마쓰야마 히데키(일본)가 3위로 예상됐다.

한국 선수로는 안병훈이 PGA 투어 파워랭킹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안병훈은 13일 PGA 투어와의 인터뷰에서 “메이저 대회 다음으로 제일 큰 대회이고,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모이는 자리라서 (우승이) 더 탐난다”면서 “이 코스는 대회뿐 아니라 주니어 때도 많이 경험해 봤다”고 말했다.

올해 경기력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꾸준하게 골프를 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는 안병훈은 “기복이 심하지 않고 몇 주 동안 이렇게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프로 들어오고 나서 거의 처음 느껴보는 거라 그 점이 제일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마스터스 출전권 확보가 당면 목표라는 안병훈은 “확률이 꽤 높은 것 같다. 아직 대회가 몇 개 더 남아서 현재로서는 확정은 아니지만 이번 주에 좋은 성적 내서 확실하게 만들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한국 선수들과도 인연이 좋은 편이다.

최경주가 2011년 우승했고, 김시우도 2017년에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김시우·안병훈

/AFP·AP=연합뉴스

PGA 투어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50회를 맞아 선정된 역대 50대 명장면에서 김시우의 2017년 우승이 36위, 최경주의 2011년 우승은 37위에 각각 올랐다.

김시우는 이 대회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21세)을 세웠고, 최경주는 이 대회 최초의 아시아 국적 챔피언이 됐다.

최근 아버지가 된 김시우는 “벌써 7년이나 됐구나 싶은 생각이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다”며 “그때는 아무 것도 모르고 경기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시 (우승) 욕심이 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김시우는 “컷 통과가 모든 대회의 우선 목표다. 지금까지 7개 대회에서 컷 탈락이 없다. 꾸준히 플레이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인내가 중요하다. 성격이나 우승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면 조바심이 나고, 또 이 조바심은 플레이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잘 가다려왔으니 계속해서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버지가 된 소감을 묻자 김시우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다. 매우 신기하고 소중할 기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